

‘축구의 神’ 메시, 5번째 발롱도르 ‘품다’



2015 FIFA-발롱도르 수상자 리오넬 메시
출생 1987. 6. 24(아르헨티나)
신장 170cm
소속팀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주요 경력
2005 세계청소년축구 최우수선수상
2006 독일 월드컵 국가대표
2008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2009 UEFA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발롱도르상
FIFA 올해의 선수상,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우수선수상, 최우수공격수상, 유럽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상, 최우수공격수상, UEFA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2010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득점왕, 발롱도르상
2011 UEFA 유로파 최우수 선수상, 발롱도르상
2012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우수선수상, 최우수공격수상, 한 해 최다득점(69경기 91골 기록(리그전 50골), FIFA-발롱도르 수상(4번째)
2014 프리메라리가 개인 통산 최다골(259골) 기록
UEFA 챔피언스리그 최다골(75골) 기록
2015 UEFA 최우수 선수상(57경기 58골 기록)

역대 FIFA-발롱도르 수상자 (2005년 이후 기준)

2015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2014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포르투갈)
201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2012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2011	리오넬 메시
2010	리오넬 메시
2009	리오넬 메시
2008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포르투갈)
2007	카카 (브라질)
2006	파비오 칸나바로 (이탈리아)
2005	호나우지뉴 (브라질)

* 2010년 이후 FIFA-발롱도르 통합해서 시상, 2009년까지 별도로 시상했으나 수상자는 동일
자료/FIFA

41.33% 득표...호날두 누르고 3년만에 탈환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FC바르셀로나)가 2015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Ballon d'Or) 수상자로 선정됐다.

FIFA는 12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2015 FIFA 발롱도르 시상식을 열고 메시를 2015년 전 세계 축구계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수에게 주는 FIFA 발롱도르 수상자로 선정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이 상을 받았던 메시는 2013년과 지난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포르투갈·레알 마드리드)에게 수상의 영광을 내줬다가 3년 만에 다시 FIFA 발롱도르를 되찾았다.

메시는 FIFA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가 통합되기 이전인 2009년까지 포함해 통산 5번째 전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상을 품에 안았다.

메시와 호날두, 네이마르(24·브라질·FC바르셀로나) 등 세 명이 최종 후보로 오른 가운데 지난해 53경기에 나와 48골을 작렬하며 소속팀 FC바르셀로나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시즌 5관왕으로 이끈 메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165개국 대표팀 감독, 162개 나라 대표팀 주장, 기자 171명 등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메시가 41.33%의 득표율로 호날두(27.76%), 네이마르(7.86%)를 제쳤다.

메시는 “지난 2년은 호날두가 이 상을 받는 광경을 객석에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다시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5번째 수상은 내가 어릴 때 꿈꿨던 그 이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나에게 투표해준 분들과 팀 동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축구 덕분에 얻은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나에게 많은 교훈이 됐다”고 덧붙였다.

FIFA 발롱도르는 1991년 창설된 FIFA 올해의 선수와 프랑스 축구전문지 ‘프랑스풋볼’이 1956년부터 수상자를 정해온 ‘발롱도르’를 통합해 2010년부터 FIFA-발롱도르로 시상하고 있다. 2010년 두 상이 통합된 이후 메시가 3년 연속 수상했고 이후 호날두가 2년 연속 이 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다시 메시가 FIFA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됐다.

두 상이 통합되기 전에 메시는 2009년 FIFA 올해의 선수와 발롱도르를 석권한 바 있고 2008년에는 호날두가 역시 두 상을 한꺼번에 받았다. 2007년 카카(브라질)가 FIFA 올해의 선수와 발롱도르를 한꺼번에 받은 이후 메시와 호날두가 번갈아 수상하고 있다.

메시는 FIFA 2015년 베스트 11 공격수로도 선정됐다. 골키퍼에는 마누엘 노이어(독일)가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수비수에 세르히오 라모스(스페인), 마르셀루·치아구 시우바·다니 아우베스(이상 브라질)가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로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스페인), 루카 모드리치(크로아티아), 폴 포그바(프랑스)가 선정됐다. 올해의 지도자상은 남자 부문 루이스 엔리케 FC바르셀로나 감독, 여자 부문에는 미국 대표팀 질 엘리스 감독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의 여자 선수에는 여자 월드컵 우승을 이끈 미국 대표팀 칼리 로이드가 선정됐다.

메시는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푸스카스 상 후보에도 올랐으나 브라질 프로축구 빌라 노바에서 뛰는 공격수 웰턴 리리(브라질)의 오버헤드킥 골에 밀렸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소재 콩그레스하우스의 2015 국제축구연맹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리오넬 메시가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5 FIFA 베스트 11

공격수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FC바르셀로나)	네이마르 (브라질·FC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포르투갈·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스페인·FC바르셀로나)	루카 모드리치 (크로아티아·레알 마드리드)	폴 포그바 (프랑스·유벤투스)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 (스페인·레알 마드리드)	마르셀루 (브라질·레알 마드리드)	치아구 시우바 (브라질·파리생제르맹)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독일·바이에른 뮌헨)		

자료/FIFA

슈틸리케 감독 ‘호날두’...주장 기성용 ‘메시’에 투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과 주장에 명목이 주어지는 국제축구연맹(FIFA)-발롱도르(Ballon d'Or) 투표권이 2년 연속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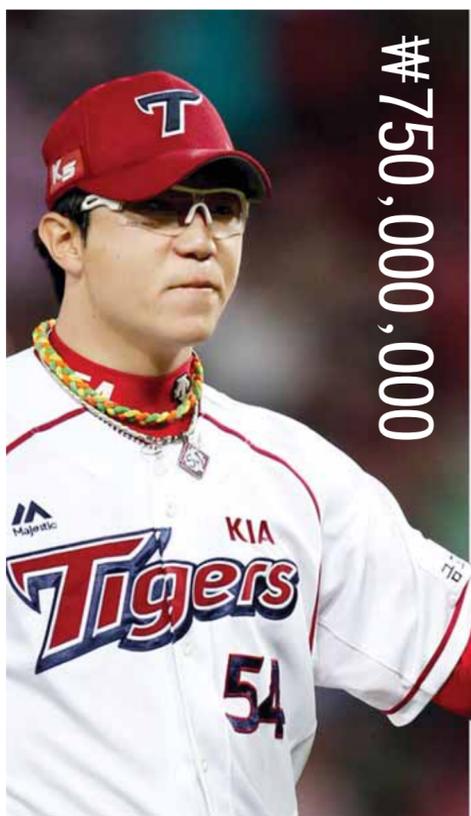
12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개한 FIFA 회원국 감독과 주장의 투표 결과에 따르면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1순위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를 선택했고, 주장 기성용(스완지 시티)은 리오넬 메시를 1순위로 뽑았다.

FIFA 발롱도르 투표는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기자단이 참가한다. 한 명이 3

명의 선수에게 표를 던질 수 있고, 1위로 지목한 선수에게는 5점, 2위에는 3점, 3위에는 1점이 주어진다.

한편, FIFA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포르투갈 주장’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술밥을 먹는 카림 벤제마(1순위), 하메스 로드리게스(2순위), 가레스 베일(3순위)를 찍었다.

발롱도르의 주인공인 메시 역시 바르셀로나의 동료인 루이스 수아레스(1순위), 네이마르(2순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3순위)에게 투표를 했다.



#750,000,000

양현종 7억5천만원 연봉 대박

예비FA...3억5천만원 올라

KIA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연봉 대박을 터트렸다.

KIA가 12일 2016시즌 연봉 계약을 마무리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미계약자 양현종이 7억5000만원에 도장을 찍으면서 2016시즌 재계약 대상자 50명과의 협상이 끝났다.

양현종은 지난 시즌 4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연봉이 뛰면서 87.5%의 인상률을 기록, 타이거즈 연봉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양현종은 지난해 4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2013년 ‘예비 FA’였던 윤석민이 기록한 비FA 역대 최고 연봉인 3억8000만원을 뛰어넘었다. 인상 금액 역시 2억8000만원(인상률 233.3%)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억원(최희섭)을 넘어섰다.

2015시즌 2.44의 평균자책점으로 15승 6패를 기록한 양현종은 1년 만에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팀 최고 인상 금액을 3억5000만원으로 같이치운 ‘예비 FA’ 양현종은 FA 윤석민(12억5000만원)에 이어 팀 내 연봉 랭킹 2위에 올랐다.

계약을 끝낸 양현종은 “배려해주는 구단에 고맙다”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올 시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KIA는 지난 시즌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을 전개하는 등 인상적인 한 해를 보내면서 33명이 인상된 연봉을 받게 됐다. 동결은 10명, 삭감 10명이다.

선발한 자리를 꿰찬 임준혁이 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연봉이 뛰어오르면서 프로 데뷔 13년 만에 역대 연봉 대열에 합류하는 등 FA를 제외한 KIA의 역대 연봉자는 김광수(1억원)·양현종(7억5000만원)·심동섭(1억4000만원)·최영필(1억3000만원)·김병현(1억5000만원)·김진우(1억2000만원·이상 투수), 김민우(1억2000만원)·김원섭(1억5000만원)·신종길(1억2000만원)·나지완(2억원·이상 야수) 등 11명이다. 50명의 연봉 총액은 38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총액(32억7200만원)보다 5억5400만원이 상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개막전 출전 가능할 것”

롱토스·달리기 등 훈련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손조로운 복귀를 위해 열심히 몸을 흔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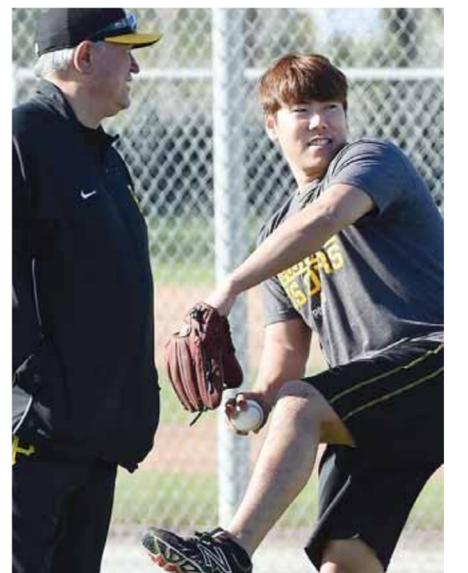
피츠버그 지역매체인 ‘피츠버그 트리뷴-리뷰’는 11일(현지시간) 피츠버그 미니캠프에 참가 중인 강정호의 근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정호는 훈련을 참관하러 온 닐 헨팅턴 단장의 뒤로 물러 다가가 꺼안으며 헨팅턴 단장을 놀라게 한 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

강정호는 이날 약 5분간 야외에서 롱 토스를 소화했고, 가벼운 달리기와 상체를 활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소화했다. 수술을 받은 무릎과 정강이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한 것이다.

훈련은 트레이너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고, 롱 토스 때는 클린트 허들 감독이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피츠버그 트리뷴-리뷰’는 이 정도만으로도 만족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가 수술을 받은 지 약 4개월이 지났다”며 “강정호의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헨팅턴 단장은 강정호의 복



귀 시점과 관련해 4월 중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개막전에 맞춰 복귀할 수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 아마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